



보도자료

일 시 : 2010. 11. 11(목)

발 신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880-9017)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사항

- 서울대학교의 입학전형은 각 전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기조로 학교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2학년도 입학전형도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유지하되 대입 전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학생들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형 유형에서는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정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수시모집 북한이탈주민특별전型的 명칭을 기회균형선발전형 II로 바꾸고 정시모집에서 선발한다.

	모집 시기	
	수시모집	정시모집
정원 내	· 지역균형선발전형 · 특기자전형	· 일반전형
정원 외	· 외국인특별전형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 저소득층 가구 학생, 농어촌학생
-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특수교육대상자

- 지역균형선발전형은 단계별 전형에서 통합 전형으로 전환하여 완전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계적인 내신 성적으로 2배수를 선발하는 1단계 전형이 폐지되며,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1단계 전형에서 기계적인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내신 경쟁과 인위적인 내신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학교장의 추천권을 강화하고 지방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고교별 추천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지원자 전원에게 대하여 서류평가와 면접을 실시한다.

	서류평가(교과, 교과외), 면접	최저학력기준
2012학년도	100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내

【참고】 2011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

	1단계		2단계		최저학력기준
	교과영역	선발인원	서류평가	면접	
2011학년도	100	2배수 이내	100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내

-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의 경우 2011학년도에 수리 ‘나’형 또는 사탐 응시자를 최종 모집 인원의 50%이하로 선발하였으나, 2012학년도에는 수능 응시영역에 따른 선발 인원 상한제한이 폐지된다.
- 특기자전형에서는 지원 기회의 형평을 고려하여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도 삼수생 이상의 지원을 허용한다. 또한 인문계열에서 실시되던 논술고사는 경영대학과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에 한해 실시하지 않는다.
 - 자유전공학부가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2012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류평가 후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체육교육과는 모집인원을 확대하여 학업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며 최저학력기준도 조정되었다.

구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정시모집	합계
	개인종목	단체종목	무용	리더십	소계		
2012학년도	2명	4명	4명	4명	14명	24명	38명
2011학년도	2명	2명	4명		8명	30명	38명

2011학년도 최저학력기준	→	2012학년도 최저학력기준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		개인종목, 무용 동일
		단체종목 4개 영역 중 <u>1개 영역</u> 이상 5등급 이내
		리더십 4개 영역 중 <u>2개 영역</u> 이상 2등급 이내

- 음악대학 국악과는 2014학년도부터 특기자전형을 실시하지 않으며, 정시모집에서 전원을 선발한다.
- 정시모집에서는 전형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2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구분	1단계		2단계			
	수능	선발인원	수능	학생부	논술고사	총계
2012학년도	100	2배수	30	40(교과30+교과외10)	30	100
2011학년도	100	2배수	20	50(교과40+교과외10)	30	100

- 교과영역은 교과(군)별 필요최소이수단위 수만 교과별·학기별 가중치 없이 등급 점수를 기준으로 평점평균을 활용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리 ‘나’형 응시가 원칙인 인문계열 모집단위 등에서 수리 ‘가’형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을 백분위 5에서 백분위 10으로 확대한다. 또한 탐구영역 응시과목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응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사회탐구: 3과목을 응시하되, 국사를 반드시 포함

- 과학탐구: 서로 다른 3개 과목에 응시하되, II수준의 1개 과목 포함

I, I, II	· 현행 I + II, I, I 과 일관성 있는 형태
	☞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생물) II (○)
	☞ 화학 I, 화학 II, 생명과학(생물) I (×)

◦ 음악대학 작곡과는 전자음악 전공을 신설하고 정시모집에서 선발한다. 작곡 전공 모집 인원은 작곡 8명, 전자음악 2명, 지휘 2명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만약 제2외국어를 선택할 경우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만 인정한다.

모집단위		영역	언어	외국어	수리	탐구	제2외국어
2012학년도	작곡, 지휘		100	100	50	100(택 3과목)*	
	전자음악		100	100	100	100(택 3과목)*	
	이론		100	100	50	100	-
2011학년도	작곡과		100	100	50	100	

* 탐구영역(3과목) 및 제2외국어영역 4등급 인정기준: 2과목이상 4등급 이내

- 음악대학 국악과는 지휘 전공을 신설하며 정시모집에서 1명을 선발한다.
- 기회균형선발전형에서는 기 예고된 대로 ‘신활력지역’의 시 지역에 대한 농어촌학생 지원 자격을 폐지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하는 전형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중 검정고시 합격자 등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단, 지원 기회는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1회로 제한한다.)
-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어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농업계열 전문계고 학생에 대한 동일계특별전형과 사범대학 지역인재육성 특별전형을 시범 실시한다. 모집 인원을 정원의 3% 이내이다. 최저학력기준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의 중이며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 내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11년 3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